

일본 방위 정책에 따른 국제정치와 동아시아 정세

-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와 동아시아의 안보 균형을 중심으로 -

일어일본문화학과 김태웅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일본의 재무장화 논의의 역사적 배경

2-1-1 종전 이후의 동아시아 지정학적 변화

2-1-2 한국전쟁과 일본의 관계

2-1-3 일본 내 보수 우익 세력의 변화와 영향

2-2 일본의 군비증강과 '반격 능력'

2-2-1 한국의 입장

2-2-2 중국의 입장

2-2-3 러시아의 입장

2-2-4 북한의 입장

2-2-5 미국의 입장

3. 결론

주제어: 일본의 재무장, '반격 능력', 평화헌법 9조, 동아시아 안보환경

요지

동아시아 지역은 21세기에 들어서며 국제정치의 변동성과 복잡한 문화적 연결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친밀도는 높지만,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두 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 사이에 다양한 이슈와 긴장감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재무장 문제는 동아시아의 정세와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일본의 재무장화 논의는 일본 내부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성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와 정치의 중심축 중 하나로 강조하며, 이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의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은 중국의 군사 성장, 북한의 핵 프로그램,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 등으로 인해 매우 민감하고 불안정한 상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새로운 방위 정책을 수립하고 국방비를 증가시키며 지역 내 군비 경쟁의 주체로 부상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 군사적 이유로 인해 많은 국가들의 반감을 샀다.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일본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의 긴장과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대규모 군사 충돌을 피하고 있으며,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통해 긴장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은 동아시아 정세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일본의 재무장화 논의는 그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군사적 역사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동아시아 군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이 지역의 안보 환경과 국제정치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특히, 중국, 한국 등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안보 및 경제적 영향,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 안보 환경과 국제정치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1. 서론

21세기 동아시아는 국제정치의 변동성과 복잡한 문화적 인연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친밀도는 높은 반면, 국제정치의 무대에서는 두 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 사이에 다양한 이슈와 긴장감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재무장 문제는 동아시아의 정세와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화두로 부상하였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와 정치의 중심축 중 하나로 급부상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재무장화 논의는 일본 내부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 안정성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미래 안보 환경과 국제정치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화 논의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파악하려는 것이 주된 동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재무장화 논의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동아시아 군사 균형의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과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주요 방향은, 일본의 재무장화 논의가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한국, 등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안보 및 경제적 영향,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2. 본론

2-1 일본의 재무장화 논의의 역사적 배경

2-1-1 종전 이후의 동아시아 지정학적 변화

종전 이후 동아시아는 지정학적 변화가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동아시아는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가 국제정치와 군사 전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은 각각 자신들의 영향권을 확장하기 위해 경쟁했으며, 1949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로 선포되면서 공산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주도의 서방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소비에트 연방 주도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의 형성을 촉발시켰다. 하

지만 이 당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대약진운동¹, 문화대혁명의 후유증으로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우위는 점하지 못했다. 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²한 뒤로부터 점점 경제적 성장과 군사적 강화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밸런스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연합을 강화하려 했으며, 이때 주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일본을 선정하였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지만,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거점으로 여기며, 친미 성향의 강력한 정부를 지원하여 이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일본에게 병력의 파견과 재무장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안정을 추구하려 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미국의 주도로 대일본제국헌법을 개정한 결과이다. 이 평화헌법은 일본 내에서 널리 지지받으며, 일본의 군사 정책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평화헌법의 핵심은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제9조에 있다. 제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주의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가 권력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 그리고, 제9조 2항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에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냉전 시대의 시작과 동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일본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고자 했으며, 일본은 평화헌법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군사충돌 또는 냉전 개입을 피해왔다고 볼 수 있다.

2-1-2 한국전쟁과 일본의 관계

한국전쟁은 1950년 6.25 ~ 1953년 7.27까지 지속되었다. 전쟁 자체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시작되었지만, 미국, 중국, 소비에트 연방 등의 열강들이 개입함에 따라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에서의 공산

¹ 공산 혁명 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1958년부터 1961년말-1962년초까지 마오쩌둥(毛澤東)의 주도로 시작된 농공업의 대증산 정책이다.

² ‘개혁’은 중국 내에서의 다양한 변혁을 말하며 ‘개방’이라 함은 고립된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과 외자유치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대외개방 정책을 의미한다.

화를 막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전쟁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였다. 한국전쟁 중 일본은 미국의 주요 후방기지로 활용되었으며, 일본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병력만 유지하고 있던 병력들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예비대(警察予備隊)와 해상경비대(海上警備隊)라는 준군사조직 창설하게 된다. 전쟁에 필요한 미군의 군수품을 생산하게 되면서 전후 잃어버린 중공업 등을 다시 재건하는데 발판이 되었다. 또한 '미일안전보장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국권을 회복시켰고 GHQ(는 일본에서 철수하게 됐다. 기존까지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들은 '주일 미군' 전환되었다. 이후 1954년, 경찰예비대(警察予備隊)와 해상경비대(海上警備隊)는 자위대법의 제정에 따라 통합되면서 자위대가 창설되었다.³

하지만 자위대의 설립과 활동은 일본의 평화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 양측 모두에서 갈등과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는 일본 내에서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1-3 일본 내 보수우익 세력의 변화와 영향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과 우경화는 매우 가깝게 이어져 있다. 이는 보수 언론과 관료, 정치인이 관계되어 있으며 일본 내 적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극우 세력의 영향은 물론 일본의 재무장과 깊게 관련되었다. 선행논문에 따르면 일본의 우경화는 우익, 좌익에 따른 개념이 아니며, 이는 과거 2차세계대전 패전까지 일본을 지배하던 군국주의와 같은 경향을 말한다.⁴

일본의 우경화의 시작은 일본의 2차세계대전 패전 이후 GHQ(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을 평화적인 국가로 만들기위해 군국주의적인 우익 세력을 배제하고 평화헌법을 도입이후부터 진행되었고 역사적배경으로 GHQ는 '미일안전보장조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조치를 취했지만 1948년 동아시아에서의 공산권의 위협이 커지자,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하면서 극우 세력이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1952년 '샌프란

³ "일본사 - 패전, 그 이후" <티스토리> 2023. 1. 16.

<<https://mspproject2023.tistory.com/919?category=872020>> (2023. 10. 11. 검색)

⁴ 손혁재. (2005) 「일본의 우경화와 동북아 평화」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p.56

시스코 강화조약' 후 추방당했던 복귀한 극우인사들은 국가의 안보 강화와 재무장을 주장하며 사회지도층으로 부상했다. 미국의 견제 요구와 극우 세력의 염원이 만나, 1950년대부터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가 가속화되었다.

일본의 재무장화 논의는 일본 국내 정치의 핵심 이슈로,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의 보수합동에 의해 자유민주당(자민당)이 탄생하면서 '55년 체제'가 성립이 되고 이후 38년 동안 장기집권을 하였다. 장기집권 사이 미국이 점령기에 제정한 평화헌법을 개정할 것 이냐 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민주당 내부 의견 차이로 인해 일본의 보수 세력은 두가지의 노선으로 나뉘었다. 이 시기, 자유민주당의 주류는 온건보수파(협조파)였다.

두가지 노선중 첫번째는 요시다 시게루를 중심으로 한 온건보수파(협조파)였다. 협조파는 일본안보에 중요한 부분인 태평양을 미국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방위부분을 미일협력으로 맡기고 평화헌법을 수호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전후 망가진 경제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하토야마 이치로, 기시 노부스케, 아베 신조를 중심으로 한 강경우익 세력(자주파)은 1950년대부터 평화헌법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화헌법의 개헌과 자주외교, 강력한 군대의 보유를 주장했다.⁵

하지만 온건보수파의 견제와 일본 사회 내 분위기 때문에 추진하지는 못하지는 못하고 대신 미일 안보조약의 내용을 확대해서 일본자위대가 합법적으로 활동반경을 넓히는 것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UN이 주도하는 국제 평화유지 목적 PKO (Peace Keeping Operation)의 해외파병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 등 지속적으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⁶

1993년 자유민주당의 일당체제가 붕괴된 후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개헌과 군대보유 보통국가화를 주장하는 강경우익이 일본정치의 주류가되었다. 아베 전 총리가 죽은 이후 온건보수파인 기시다정권으로 전환되고, 아베정권 이후 양분화된 보수우익세력을 강경 보수성향의 선거 공약일부 계승함으로써 다시 화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⁷ 하지만 기시다정권은 아베정권은 큰 관점에서 보면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방향성은 서로의 결이 다르고 현재는 온건보수파가 정권을 잡고 있

⁵ 김태주 (2023) 「기시다 정부의 헌법 개정 논의: 안보 함의와 시사점」 전략보고 208호 p.3

⁶ 김민수. (2016)「일본 재무장의 헌법적 검토.」『比較法研究』p.15, 16

⁷ 김태주 (2023) 「기시다 정부의 헌법 개정 논의: 안보 함의와 시사점」 전략보고 208호 p.9

으므로 급진적인 군비증강 및 헌법개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2 일본의 군비증강과 '반격 능력'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상황은 마치 민감한 화약고에 불씨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과 비슷하며,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정세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자위대는 2022년 12월 12일 이전까지 평화헌법에 입각한 '전수방위' 원칙⁸과 주일미군의 역할구분에 따라서 '반격능력'⁹을 보유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2022년 12월 이후로 일본의 3대 안보 문서인 '국가안보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동시에 개정하면서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고 '반격 능력'을 보유를 명시했다.¹⁰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성에서 발간된 '2023판 방위백서'¹¹를 통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미국 및 뜻이 같은 기타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2023년 발표된 일본의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군비 지출 계획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의 군사 계약액(국방비)은 총 17.2조 엔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방위성은 앞으로 5년간의 군사비로 약 43.5조 엔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전 기간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수치로, 일본의 상당한 군비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⁸ 専守防衛·공격당할 때 방어용으로만 무력행사

⁹ '적기지 공격능력'로 불리던 것으로, 유사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 위험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방위성 참조

¹⁰ 3대 안보문서에 자위대 '반격 능력' 못박았다 <한양일보> (2023. 10. 12. 검색)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2/12/14/JZLV52NY2NBKRHDB3ATTA4CZMU/>

¹¹ "令和 5 年版防衛白書" <防衛省・自衛隊>

<표1> 국가방위전략 (國家防衛戰略) 비용 현황

分 野		前回の計画 (2019～2023年度)	今回の計画 (2023～2027年度)
スタンド・オフ防衛能力		0.2兆円	5兆円
統合防空ミサイル防衛能力		1兆円	3兆円
無人アセット防衛能力		0.1兆円	1兆円
領域横断作戦能力 (宇宙・サイバー・陸海空自衛隊の装備品)		3兆円	8兆円
指揮統制・情報関連機能		0.3兆円	1兆円
機動展開能力・国民保護		0.3兆円	2兆円
持続性・強靱性	弾薬・誘導弾	1兆円	2兆円 (他分野も含め約5兆円)
	装備品の修理など	4兆円	9兆円 (他分野も含め約10兆円)
	施設の強靱化	1兆円	4兆円
防衛生産基盤の強化		1兆円	0.4兆円 (他分野も含め約1兆円)
研 究 開 発			1兆円 (他分野も含め約3.5兆円)
そ の 他		4.4兆円	6.6兆円
		2019～2023年度の計画額 17.2兆円 (契約額)	今後5年間で必要な経費 43.5兆円 (契約額)

자료: 令和 5 年版防衛白書

출처: 방위성

추가되는 비용 중 '반격 능력'의 핵심은 <표1>에서 스탠드 오프 방어능력(スタンド・オフ防衛能力)이다. 이것은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만으로는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타격능력을 확보하여 적의 선제공격을 억제한다는 것이다.¹² 방위백서에 따르면 '반격 능력'은 할당된 비용이 0.2억엔에서 5억엔으로 증가되었다. 이를 통해 이미 핵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서는 세계 8위¹³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스탠드 오프 방어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자위대는 '전수방위'의 역할인 대공(対空)/대잠(対潜)/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공격능력을 갖춘 해상전력이 된다.

¹² 배준형(2023),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와 해상자위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¹³ "Global Firepower 2023" <GFP> <https://www.globalfirepower.com/> (2023. 10. 13. 검색)

이런 능력을 갖춘 자위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영향력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과 '반격 능력' 보유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주변 국가들 간의 복잡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은 일본의 변화에 대해 각국은 각기 다른 입장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미국은 저마다의 안보 전략과 동맹 관계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일본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다.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는 순서는 그들의 지리적 위치와 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성되었다. 먼저, 한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깊은 역사적 관계로 인해 일본의 군비 증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음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내 주요 강대국으로서 일본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 놓여 있어,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중국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배경으로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을 경계하며,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중요시한다. 이어서 북한은 일본과의 직접적 적대 관계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려해 강한 경계심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일본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한 지지나 특정한 전략적 방향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순서로 각국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군사적 확장이 동아시아의 안보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2-1 한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의 군사적 확장,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 등은 한국에게 여러 안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안보 및 군사적 전략에 있어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역사적 갈등과 영토 분쟁, 두 나라 국민 간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복잡하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배경에서, 양국 간의 협력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도 한국의 대일 정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일 정책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한일 관계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2-2 중국의 입장

중국은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과거 역사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인 인식은 과거 일본의 침략 행위와 전쟁 범죄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중국이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된 이유이다.

<표2>



자료:令和 5 年版防衛白書

출처 방위성

2012년에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의 세 개 섬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국유화한 사건¹⁴은 이러한 반일 감정을 더욱 부추겼다. 이로 인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는 중국의 함정과 잠수함이 영해를 침범하는 등 지속적인 긴장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자민당은 중국의 증가하는 활동에 대항하기 위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는 해역에서 미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을 통해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¹⁵

더불어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군사력도 대폭 강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주변 국가들, 특히 일본에게는 안보 우려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은 중국의 이러한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방위백서가 제공하는 자료<표2>에 의하면 중국의 국방비가 2012년에 비해 약 2.2배 6,503억위안에서 1조4천505억위안으로 크게 증액되었고 주요 해상전력, 항공전력, 핵탄두가 크게 증강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2023년도 국방비는 7프로 더 증가해 1조5천537억위안으로 증가했다.¹⁶

¹⁴ 장혜진(2015). 「2010년 이후 일본의 對센카쿠 정책 변화: ‘미해결보류’합의의 반복」 한국국방연구원 WoWW Report

¹⁵ "日여당, 센카쿠서 미일 연합훈련 등 대중 실효지배 강화 추진" <뉴시스> 2020.09.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082345?sid=104> (2023. 10. 14. 검색)

¹⁶ "올해 중국 국방예산 293조원...7.1% 증가" <연합뉴스> 2023.03.05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305007000032> (2023. 10. 15. 검색)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자국의 안보와 지역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 전략을 재평가하고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과 지역 패권 경쟁은 양국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한 자국의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관계와 안보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3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의 대러(對露)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이러한 반감은 더욱 심화되었다. 러시아는 일본에 대한 푸틴 대통령 및 주요 인사들의 자산 동결, 특정 품목의 수출입 금지, 외교관 추방 등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¹⁷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일본과의 비핵화 협력 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쿠릴 열도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다. 일본이 미국과의 정치적 및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는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와 연결될 수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쿠릴 열도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¹⁸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가 2023년 상반기에 예산을 초과하여 국방비를 지출한 것도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러시아의 국방비는 현재 전체 예산 중 3분의 1가량 국방비로 지출될 만큼 소련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사할린-2'¹⁹ 프로젝트와 같은 중요한 에너지 협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

¹⁷ "중러 정상회담 재부린 日 겨냥했나...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 <연합뉴스>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323007900641> (2023. 10. 16. 검색)

¹⁸ "러시아, 일본과 비핵화 협력 관련 협정 일방적으로 종료"
<https://www3.nhk.or.jp/nhkworld/ko/news/k10014253371000/> (2023. 10. 17. 검색)

¹⁹ 사할린 프로젝트는 러시아 사할린주에서 진행되는 유전, 천연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이다. 광구는 사할린섬 전역에 1~8구역까지 나뉘고, 1, 2 구역은 각각 사할린 제1 프로젝트, 사할린 제2 프로젝트로 1990년대부터 생산 플랜트, 파이프라인 등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다. 하지만, 러시아는 국제적 압박과 자국의 안보 필요성에 따라 일본에 대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4 북한의 입장

북한과 일본 사이의 외교적 관계는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안보 문제로 인해 매우 험악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일부 우익 집단이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일본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재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이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과 새로운 군사 능력에 대응하여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군사력 및 국방비는 공식 정보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지만 BBC뉴스²⁰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최대 26.4%로, 전 세계 170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렇게 비율로는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환경 때문에 자세한 국방비 자체를 숨기고 있고 최신정보를 통제하고 있어서 접근하기 힘들다.

2-2-5 미국의 입장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안보 전략에서 일본을 핵심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본의 재무장과 방위 정책 변화에 대해 전략적 이해를 함께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은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군비 증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 부담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일본이 개정한 '국가안보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은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미일동맹은 동아시아에서의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 미국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²⁰ "북한 GDP의 25%가 군사비용으로 사용되는 이유" <BBC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62628955> (2023. 10. 18. 검색)

과 군사적 자주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국과의 갈등 고조를 방지하고,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4. 결론

2023년 현재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중국의 군사력 급속 성장,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과 미사일 도발,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 및 대외적 긴장 조성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극도로 민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압박 등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동아시아는 마치 화약고와 같은 긴장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은 우경화와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위 정책을 수립하고,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키며 반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내 새로운 군비 경쟁의 주체로 부상했다.

일본의 이러한 방위 능력 변화는 다양한 역사적, 군사적 이유로 인해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과거의 전쟁 범죄와 침략의 기억으로 인해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영토 분쟁과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이들 국가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으며, 이러한 일본의 변화가 동아시아의 기존 안보 균형을 흔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이 지역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역사적 갈등과 국민 감정의 문제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의 군비 증강은 한국 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와 함께 경계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하며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재무장화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복잡한 안보 상황 속에서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특히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보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요

소로 여겨진다. 미일동맹은 동아시아에서의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자주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미국은 일본의 강화된 군사적 역할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가 지역 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국가 간의 갈등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의 위험뿐만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갈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역할은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중재자 역할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초래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대응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동아시아 정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은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중한 접근과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국제적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 지역의 안보 환경과 국제정치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향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미래 안보 환경은 일본,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간의 협력과 갈등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 지역의 국제정치와 안보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남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손혁재(2005)「일본의 우경화와 동북아 평화」『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pp. 56-65.
- 이상수(2006)「일본의 평화헌법개정과 보통국가론, 그리고 한반도」『평화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pp. 137-165.
- 장혜진(2015)「2010년 이후 일본의 對센카쿠 정책 변화: ‘미해결보류’합의의 반복」WoWW Report
한국국방연구원
- 김민수(2016)「일본 재무장의 헌법적 검토」『比較法研究』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pp. 7-36.
- 정진성(2020)「1950년대 일본의 ‘특수’(特需)와 냉전구조」『일본비평』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p. 74-111.
- 장혜진(2022)「2023년 일본의 안보정세 전망」KIDA한국국방연구원
- 조남훈,조은일(2022)「2022 국방정책 환경 전망」KIDA한국국방연구원
- 이강경(2023)「일본의 재무장 추진동향과 시사점 고찰」『한국군사학논총』 미래군사학회 pp.83-108.
- 배준형(2023)「일본의 반격능력 확보와 해상자위대」한국해양전략연구소
- 김태주(2023)「기시다 정부의 헌법 개정 논의: 안보 함의와 시사점」전략보고 208호

기타 자료

- "일본사 - 패전, 그 이후" <티스토리> 2023. 1. 16.
<<https://mspproject2023.tistory.com/919?category=872020>> (2023. 10. 11. 검색)
- "3대 안보문서에 자위대 '반격 능력' 못박았다" <조선일보> 2022.12.14 (2023. 10. 12. 검색)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2/12/14/JZLV52NY2NBKRHDB3ATTA4CZMU/>>
- "Global Firepower 2023" <GFP>
<<https://www.globalfirepower.com/>> (2023. 10. 13. 검색)
- "日여당, 센카쿠서 미일 연합훈련 등 대중 실효지배 강화 추진" <뉴시스> 2020.09.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082345?sid=104>> (2023. 10. 14. 검색)
- "올해 중국 국방예산 293조원...7.1% 증가" <연합뉴스> 2023.03.05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305007000032>> (2023. 10. 15. 검색)
- "중러 정상회담 재뿌린 日 겨냥했나...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 <연합뉴스> 2023.03.23>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323007900641>>(2023. 10. 16. 검색)
- "令和 5 年版防衛白書" <防衛省・自衛隊>
<<https://www.mod.go.jp/j/profile/index.html>> (2023. 10. 16. 검색)
- "러시아, 일본과 비핵화 협력 관련 협정 일방적으로 종료" <NHK WORLD JAPAN> 2023.11.10
<<https://www3.nhk.or.jp/nhkworld/ko/news/k10014253371000/>> (2023. 10. 17. 검색)
- "북한 GDP의 25%가 군사비용으로 사용되는 이유" <BBC코리아> 2022.08.23
<<https://www.bbc.com/korean/news-62628955>> (2023. 10. 18. 검색)
- "중국: 개혁·개방정책 이전과 이후" <동북아역사넷> (2023. 10. 18. 검색)
<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levelId=edeah.d_0006_0040_0020_0010>